

# 선열의 피무덤 앞에서 부르는 노래

##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현장 답사기

최근 서점에 나온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조동걸)와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윤병석)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온몸을 바쳐 싸운 선열들의 행적을 추적한 역사서로서, 또 그들 역사의 숨결을 현장의 지리환경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서로서 손색이 없는 책들이다. 하물며 광복 50주년이 되도록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데다 오히려 독립군에 대한 기억마저 퇴색해가는 것이 우리 실정이고 보면, 그 발간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 만주별판과 중국대륙의 독립군들

이 2권의 역사기행서가 공통으로 답사하는 지역은 고구려·발해의 옛땅이던 만주지방과 중국대륙,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지방이다. 이들은 ‘독립전쟁론’ 전술에 의거, 일찌감치 정착한 한인촌을 배경으로 하여 해외 독립운동 기지로 삼았던 지역들이다. 그밖에 《독립군의 길따라...》에서는 독립군의 전신이라 할 의병들의 국내 활동무대를 답사했고, 《한국독립운동의...》는 일본과 구미지역에서의 계몽운동 및 외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현장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연변조선족자치구가 된 만주 서북간도지역은 1910년을 전후하여 최대 규모의 국외 한인사회가 건설된데다 압록강이나 두만강만 건너면 국내 진입이 용이했으므로 독립운동기지의 최적지로 손꼽혔다. 을미사변(1895)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킨 유인석이 이곳으로 건너온 뒤 한민족의 항일부흥기지로 삼은 지역이기도 하다.

삼둔자(도문시 월척항) 전투로 시작된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이상 1920)의 승전고를 여기서 듣는다. 연길에서는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과 그 후신인 명동학교의 유지(遺址)에서 운동주의 확장시절을 그려본다. 연길에서 용정으로 넘어가는 모야산 기슭, 일송정이 해란강을 굽어보는 이곳에서 훈춘사건(1920·경신참변)을 취재하던 《동아일보》 장덕준 기자가 일본군에게 유인 참살당했다.

북만주 하얼빈은 안중근의사의 의거(1909)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 하얼빈역 구내에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자리가 남아 있는데, 이는 괴뢰 민주국이 이토의 동상을 세웠던 흔적이라 한다. 또 일송 김동삼과 남자현 여사가 갇혔던 일본영사관 옛집이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쪽 교외에는 ‘마루타’로 악명높은

조동걸·윤병석 교수가 각각 펴낸

두 권의 역사기행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세계곳곳에서

온몸을 바쳐 싸운 선열들의

행적을 추적한 글로 기행문 읽기의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광복 50년이 되도록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독립군에 대한

기억마저 퇴색해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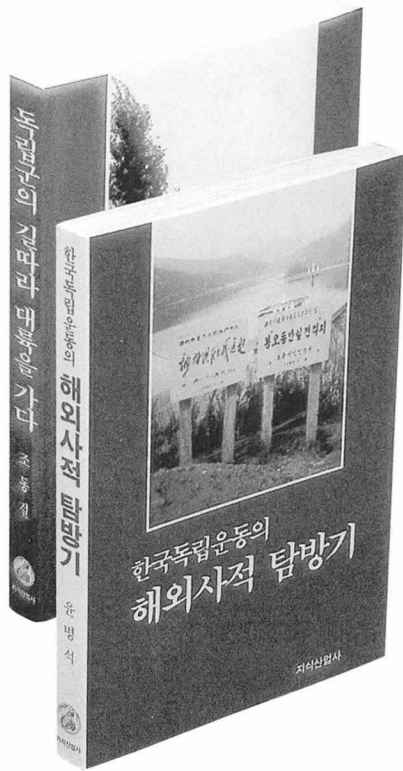
실정에서 발간돼 의의가 더욱 크다.

일본관동군 731부대의 화장터가 흉한 볼골로 남아 있다.

중국대륙에서의 답사는 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이동, 광복군사령부의 소재를 좇고 있다. 1919년 4월 10일 수립된 임시정부는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지금 노신공원) 거사(1932)가 있기까지 13년동안 상해에서만 대 여섯번 청사를 옮겼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경리 4호 건물은 상해시절의 마지막 청사였다.

윤봉길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항주·진강·장사·광주·유주·기장을 거쳐 1940년 중경에 정착한다. 항주는 서호(西湖)와 송나라의 충신 악비(岳飛)의 무덤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임시정부는 국민당(김구·이동녕)과 민족혁명당(양기탁·김규식·조소앙)의 이탈로 일시 와해 위기를 맞기도 한다.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을 정리하면서 《독립군의 길따라...》는 특별히 조선의용대(군) 또는 조선독립동맹의 발자취를 더듬어본다. 분단정국 아래 “남쪽에서는 외면당하고 북쪽에서는 숙청당하여 역사의 미아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조선의용대는 의열단·민족혁명당의 맥을 이어 창설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원봉·장지락(아리랑)의 김산·김두봉·조소앙·이청천·신익희·김규식·김성숙·최용건 등 낮은 인물이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조선의용대의 본대가 중경의 광복군에 편입하자 남아 있던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사령관 무정)이라는 독립체제를 갖추면서 정당조직으로 조선독립동맹(위원장 김두봉)을 결성한다. 조선의용군의 거점은 태항산이었으며, 후에 연안으로 이동, 여기서 광복을 맞는다.



이들 독립운동사 기행서가 러시아지역을 탐사하는 첫 관문은 연추(크라스키노)와 헤삼위(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한인촌이다.

### 애한 깃든 러시아 한인사회

이 지역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한민족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최재형·이범윤·유인석·안중근·홍범도 등이 속속 이주해와 의병들을 통합, 마침내 1910년 단일조직인 13도의군을 편성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전면 탄압을 받아 1917년 2월혁명 때까지는 독립운동이 불가능했지만, 혁명 후 다시 재개된 독립운동은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때까지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크라스키노는 안중근이 단지동맹(斷指同盟)을 결성한 곳이며, 하얼빈의거 출발점이기도 하다. 13도의군의 창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구한말 최초의 항일기지로 등장한 개척리 마을, ‘카레이스카야 스타보카’가 있었다. 《해조신문》《대동공보》가 항일언론을 편 곳도 여기다. 제정러시아의 강제명령으로 새로 개척한 신한촌에서는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가 조직됐다(1911).

하바로프스크에서는 1918년 이동회가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 조직인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이동회가 임시정부에 참여하면서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으로 개편했는데, 이것이 소위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다. 한인사

회당의 결성에는 김 알렉산드라 스탈케비치가 관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녀는 당시 볼셰비키당의 조직비서로서 뛰어난 적위대투사였다. 한인사회당이 결성된 칼 마르크스 거리 22호 건물에는 그녀의 얼굴 조각이 부착돼 있다.

한편 스톨보드니(자유시)에서 일어난 한인 무장부대 사이의 대충돌, 즉 자유시참변(1921)은 우리 독립운동에 큰 타격을 입힌다. 결론으로는 한인보병자유대대와 한인사회당계 의용군 사이의 군권다툼이었지만, 그 뿌리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 사이의 대립이었다. 충돌은 막대한 피해를 내고 상해파의 패배로 끝났으며, 이때 살아남은 독립군들은 러시아 볼셰비키당의 빨치산부대로 편입된다.

러시아의 독립운동사는 스탈린의 극동 한인 강제추방으로 마무리된다. 러시아 한인 최대의 비극인 이 사건으로, 한국독립운동사상 무장항일전의 상징으로 칭송받던 홍범도조차 연해주로부터 2만리 이상 떨어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황무지로 쫓겨간다. 말년에 홍범도는 고려극장의 수위로 근무했다. 그의 집은 시의 역사기념물로 지정됐고, 그 앞의 거리는 ‘홍범도 거리’로 명명됐다. 묘가 안장된 시립공동묘지에는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내 나이 70 먹은 몸이 소용 없는 총을 집어다 둘 수 없다고 보내기는 하나 내 사랑하던 30년 총입니다.”(《한국독립운동의...》 p.224). 홍범도가 크즐-오르다에 도착하자마자 압수당한 총을 설명한 글이다.

역사기행서의 유익함은 유적에 얽힌 이야기를 읽는 재미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과 그 후경으로서의 시대상황, 그리고 그로 미루어 간취할 수 있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토대로 현재의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음도 적지 않은 소득이다. 그러나 정작 답사자 자신은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해외의 사적이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많은 부분 소멸됐기 때문이리라. 게다가 나라를 찾기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선열들 앞에서 서는 우리 자신이 아직 분단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 그래서 혹자는 “역사는 조상의 피무덤 앞에서 노래부르는 것”(조동걸)이라고 갈파했던가.

〈황기직〉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조동걸) / 지식산업사 / A5신 / 370면 / 7000원  
 《한국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윤병석) / 지식산업사 / A5신 / 350면 / 10,000원